

음악치료 전공생의 실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음승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음악치료전공)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music therapy students

Seung-Hee Eum
Music Department(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이 음악치료 실습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실습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 같은 경험의 본질이 지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 참여자로 음악치료 실습 과정 중에 있는 여덟 명의 음악치료 석사 전공생들이 참여하였고,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심층 면담에 의해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 분석을 통해 12개의 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상위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치료 석사 전공생들은 실습 과정을 통해 음악치료 정체성, 학생 음악치료사로서의 태도 및 준비, 내담자와의 관계, 실습기관의 부족한 지지,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실습 경험에 따른 변화 및 성장 등을 의미 있게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음악치료사로 성장해가기 위한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초기 경험으로서 실습 교육과정의 발전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practical exper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therapy who participated in the music therapy practice course and to reveal the meaning of this experience. Eight students in the music therapy master's progr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12 sub-components and six upper-level components were derived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alysis based on data sourc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by researchers. The results confirmed that students majoring in music therapy had a meaningful experience in music therapy identity, attitude, and preparation as a student music therapist, and in fostering relationships with clients. However, they received insufficient support from the training institution, and growth according to their training experience. Thes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advanced guidelines and directions for the practical curriculum to provide an early experience to music therapy students and thus enable them to grow into music therapists with a higher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Keywords : Music Therapy, Major Student, Practice Experience, Mean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Eum(Sookmyung Univ.)

email: eum@sookmyung.ac.kr

Received July 20,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September 7,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심신 안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이 급증함과 더불어 상담 및 예술치료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음악치료는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질 높은 음악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능한 음악치료사의 양성을 위해 애써오고 있다. 음악 경험과 관계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유능한 전문성을 갖춘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적 기초, 임상적 기초, 그리고 음악치료 기초의 세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의 균형 있는 습득이 필요하다[1].

이를 위한 훈련으로 국내의 경우, 주로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중심의 수업과 임상 실습 위주의 훈련과정이 진행되는데, 음악치료 전공생의 임상실습 과정은 실제적 훈련 경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음악치료 전공생은 교육 중심의 지식들을 임상 실습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실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을 확인, 확립 및 재구성하게 된다[2]. 임상실습 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음악적, 임상적, 음악치료 기술 관련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배움의 방향 확립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실습과정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동기를 재부여 한다.

임상실습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국외 연구들은, 실습 관련한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선호 경험들에 대해, 그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와 고민에 대해, 그리고 기대, 경험, 수행능력이 있어 실습생과 슈퍼바이저가 가지는 서로 다른 관점들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2-5]. 국내 연구들을 통해서도, 음악치료 전공생이 집단 슈퍼비전 상황에서 경험하는 수치심과 평가불안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해,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그리고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그들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6-8]. 또 다른 국내 연구로서, 실습을 통한 전공생의 성장 경험에 대해, 슈퍼비전 과정에서 전공생들이 지각하는 슈퍼바이저의 피드백 수용도에 대해, 그리고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그들의 수용도와 만족도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9-11].

임상실습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진행되어 왔던 국내 및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슈퍼비전 관련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6,8-10]. 이는 슈퍼비전이 전공생들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기술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이며, 음악치료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실습 과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및 스트레스와 염려를 다룬 몇 개의 선행 연구들은, 교육자 혹은 슈퍼바이저 관점이 아닌 실습생 관점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자각해왔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임상실습에 임하는 음악치료 전공생으로 하여금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음악치료사로서의 성장에 기여하는 슈퍼비전의 중요성과, 실습생 관점에서의 불안과 염려들을 다루어왔던 선행연구들이 실습교육과 슈퍼비전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방향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습 과정에 임하는 전공생들의 슈퍼비전 경험과 염려들 이외에도 그들이 겪는 또 다른 차원의 본질적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음악치료 전공생이 느끼고 지각하는 임상실습 과정의 '부분적 경험'만을 탐색하기 보다는 '전반적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 진행을 통해, 그들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음악치료사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전반적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음악치료 전공생이 실습의 전반적 과정 동안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와 '그 경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를 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 즉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이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12]이, 본 연구의 목적인 음악치료 전공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의 본질을 보다 깊이 탐구하는 것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방법에 의한 자료 분석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 부분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2 연구자 입장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연구자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보다 명확한 인식과 함께 연구 현상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연구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들이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연구자는 이를 항상 의식하여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13].

이러한 견지 하에 본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을 표명하면, 연구자는 수도권 내 'S'대학 음악치료 대학원에서 석사 전공생들의 실습을 지도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 주 학생들의 실습 과정을 참관하며 현장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실습 경험 관련한 현상'과 비교적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 안에 놓여 있기에, 현상학의 중요 특징인 '괄호치기(bracketing)'를 인식하며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편견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다양한 선입견들을 보류하고자 노력하며 수집된 자료들을 그 자체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탐구될 현상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이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함[13]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임상실습 과정 중에 있는 8명의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을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Participant | Age | Gender | Graduate School | Practice Semester |
|-------------|-----|--------|-----------------|-------------------|
| A | 25 | Female | S | 3 |
| B | 26 | Male | M | 2 |
| C | 33 | Female | M | 1 |
| D | 35 | Male | S | 2 |
| E | 28 | Male | S | 1 |
| F | 27 | Female | H | 1 |
| G | 46 | Female | M | 3 |
| H | 33 | Female | H | 2 |

국내 음악치료 석사학위 과정에서 실행되는 실습 과정은 학교마다 그 형태를 달리하기에, 각기 다른 형태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경험을 포괄하는 것이 그들의 전반적 실습 경험의 본질 파악에 도움 될 것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실습 형태를 달리하는 학교를 가능한 골고루 포함하여 수도권 소재의 3개 학교를 채택하였고, 해당 학교의 음악치료 석사학위 과정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각 학교의 슈퍼바이저에게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학생 추천을 의뢰하여 제안된 개인들 중, 연구자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목적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S' 대학의 참여자가 인터뷰를 통해 실습 관련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표현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슈퍼바이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 이중관계를 피하고자 했다.

2.4 연구 절차

면접 이전의 사전 접촉을 통해, 참여자로 하여금 실습 전반 경험을 잘 준비해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본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설명해 주었고, 기록해 왔던 로그북을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면접 시작 전, 각 참여자는 자발적 연구 동의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후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고, 자발적 연구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이후, 실습 전반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광의의 질문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형태의 면접이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 보충 질문을 더하였다. 면접은 일대일 면대면 심층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광의의 질문으로 구성된 반 구조화된 면접 방식은 참여자 견지의 생생한 이야기 전달에 도움 되었다.

2.5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었고, 각 참여자들과 1회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60분까지 참여자에 따라 달리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녹음 내용은 전사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Giorgi[12]의 4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전체 인식'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이

전사된 축어록과 녹음 내용을 연구자의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 번 읽고 들으며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의미단위 분석'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말로 표현된 진술문을 의미별로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학문적 용어로의 변형' 단계에서는 의미단위를 서로 대조하며 관련성을 찾고 상상적 변형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로 기술된 의미단위들로부터 구성요소들을 도출해 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찾기 위해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를 진행하였다.

2.6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Creswell[13]은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과정 타당도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네 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반을 두어 연구의 엄격성을 따르고자 했다[14]. '사실적 가치'는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현상을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로 하여금 기록했던 면담 내용의 전사기록을 점검하도록 하여 진술의 정확성과 불분명한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는 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분석했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연구자의 기술과 분석이 참여자의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적용성'은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시 1회 이상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실시하였다. '일관성'은 신뢰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연구 참여자에게 동일한 설정에서 연구가 다시 진행되었을 때도 그 연구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분명한 연구절차 기록을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중립성'은 객관성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편견이 배제된 연구과정과 결과를 실행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개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속적으로 개인 일지에 기록하며 '괄호치기(bracketing)'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고자 했다.

3. 연구결과

Giorgi[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35개의 의미 단위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로부터 12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6개의 상위 구성 요소들을 조직화하였다. (Table 2).

Table 2. Components and subcomponents of the practical experience and meaning of music therapy students

| Subcomponents | Components |
|---|---|
| Criteria for a successful or meaningful session | Music therapy identity |
| Music therapy activities that can only be conducted by music therapists | |
| An insincere lack of preparation | Attitude and Preparation as a student music therapist |
| Need for self-analysis for growth as a therapist | |
| A transpersonal experience | A relationship with a client |
| Rewards and responsibilities through positive responses and changes of clients | |
| The uncooperative attitude of institutional officials | Insufficient support from the institution |
| Interrupt session by involvement of agency personnel | |
| Help through an open minded supervisor | A relationship with a supervisor |
| Frustration with insufficient or late feedback | |
| Less difficulty planning and progressing sessions | Changes and growth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
| Improving skills to deal with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agency personnel | |

3.1 음악치료 정체성

음악치료의 정체성에 대한 하위 구성들로, '성공적 혹은 의미 있는 세션의 기준'과 '음악치료사만 진행 가능한 음악치료 활동' 등이 있다.

'성공적 혹은 의미 있는 세션의 기준'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과연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음악치료 세션의 기준을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음악치료 실습을 마치고 나면 과연 오늘 세션이 의미 있었는지? 혹은 성공적이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분명 계획한대로 세션의 흐름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했지만, 내담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로 내담자들의 반응은 즐거웠지만 과연 진행한 세션이 내담자들의 치료 목적을 효과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세션이었는지.. 헛갈릴 때가 많아요. (참여자 A)

'음악치료사만 진행 가능한 음악치료 활동'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실습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신이 음악치료사로서 내담자들과 음악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악교육자로서 내담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음악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음악레슨을 하다 보니,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음악치료는 내담자가 잘못 연주한 것을 수정하여 틀리지 않게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여자 F)

3.2 학생 음악치료사로서의 태도 및 준비

학생 음악치료사로서의 태도 및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불성실함'과 '치료사로서의 성장을 위한 자기분석의 필요성' 등이 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불성실함'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시간의 부족 혹은 게으름으로 인해 음악치료 실습 계획과 준비가 미비했을 경우, 내담자와의 성공적인 음악치료 경험을 이루어 내기 쉽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내담자를 위해 설정한 치료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들에 치여 음악치료 실습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주어진 실습 세팅을 조절하지 못하고 세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임상적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끌려 가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참여자 D)

'치료사로서의 성장을 위한 자기분석의 필요성'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내담자와 보다 적절한 치료적 관계를 이루어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치료사의 자기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경험하였다.

학교 상담센터에서 성격검사와 심리검사를 받았던 것을 통해 제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제가 항상 두렵게 생각했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정리되더라고요. 별 것 아닌데 그동안 괜히 두려워하고 있었 구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내담자와 보다 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에도움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네요. (참여자 H)

3.3 내담자와의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 '역전이 경험'과 '내담자의 긍정적 반응 및 변화를 통한 보람과 책임감' 등이 진술되었다.

'역전이 경험'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좋지 않은 역전이 경험에 대해 진술하였다.

제가 무서운 남자 어르신을 힘들어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치료 과정에서 어떤 남자 어르신께 거리를 두고 저항하는 모습에 대해 슈퍼바이저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듣고 이를 깨닫게 되었어요. (참여자 H)

'내담자의 긍정적 반응 및 변화를 통한 보람과 책임감'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작은 변화를 통해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지금 5회기 세션을 진행 중인데, 4회기 때까지 활동 중간에 나가고자 했던 내담자가 이번 회기에는 끝까지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내담자의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참여자 F)

3.4 실습기관의 부족한 지지

실습기관의 부족한 지지에 대해, '기관 관계자의 비협조적 태도'와 '기관 관계자 관여에 의한 세션 방해' 등이 이야기 되었다.

'기관 관계자의 비협조적 태도'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학생 음악치료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관계자의 태도들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들을 진술하였다.

기관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음악치료 실습 시간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인 그들의 태도를 겪게 되었어요. 이럴 때 학생 음악치료사로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기관 담당자와 학생 음악치료사가 과연 갑과 을의 관계인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참여자 B)

'기관 관계자 관여에 의한 세션 방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세션 목적과 흐름에 따라 내담자들과 함께 세션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습 기관의 요청으로 갑자기 치료과정과 관련 없는 음악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였다.

세션 직전, 계획하고 준비했던 실습을 위해 세팅을 하는 과정 중, 곧 아이들 음악 수행 평가 기간이니 음악치료 대신 노래 연습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기관 담당자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 어찌해야 할지 많이 난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참여자 C)

3.5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방적 태도의 슈퍼바이저를 통한 도움’과 ‘충분하지 않은 혹은 늦은 피드백에 대한 답답함’ 등이 이야기 되었다.

‘개방적 태도의 슈퍼바이저를 통한 도움’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스타일의 슈퍼바이저보다는 학생 치료사의 생각과 의도를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슈퍼바이저의 도움이 더 유익했음을 경험하였다.

저의 슈퍼바이저 교수님께서는 정해진 답을 주시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열려 있는 질문을 자주 하시고 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편이었는데,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E)

‘충분하지 않은 혹은 늦은 피드백에 대한 답답함’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학생 음악치료사로서 실습 며칠 전에 치료적용계획서를 미리 보내 피드백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을 수정 및 보완하게 된다. 충분하지 않은 피드백이 오거나 혹은 늦은 피드백을 받을 경우, 계획한 치료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을 겪었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종게 해석하자면, 꼼꼼하시기 보다는 자유를 많이 주시는 편이라 과제 제출에 대한 수정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럴 경우 과연 제가 음악치료 적용계획서를 잘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 믿지 못하게 되고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F)

3.6 실습 경험에 따른 변화 및 성장

실습 경험에 따른 변화 및 성장으로서, ‘세션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어려움 감소’와 ‘기관 담당자와의 관계 어려움 대처 기술 향상’ 등이 이야기 되었다.

‘세션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어려움 감소’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실습 첫 학기에 비해 세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음을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학부 때 문과 관련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글쓰기에 나름 자신 있었지만, 처음 접하게 되는 치료적용계획서 작성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치료적 논거를 찾지 못할 경우 생각했던 활동을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실습 2학기 경험을 통해 많이 적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G)

‘기관 담당자와의 관계 어려움 대처 기술 향상’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비록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습 첫 학기에 비해 학생 음악치료사로서 기관 담당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보다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예전과 달리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기관 담당자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게까지 되었고요. (참여자 B)

4. 논의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이 준비된 음악치료사로 성장해가기 위한 초기 경험으로서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이들이 임상실습 전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논의를 전개해 본다.

첫 째,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단순히 음악의 즐거움만을 제공하거나 혹은 음악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내담자의 치료목적 향상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자신들의 음악치료 실습 경험 안에서 스스로 체감하고 있었다. 이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실습 과정에 대한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본질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음악치료 실습지도 과정에서 전공생들로 하여금 음악치료의 정체성을 보다 견고히 확립할 수 있는 지침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

인 세션을 적용하기 위해 치료 계획에서부터 준비 및 연습 그리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성실히 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와 건강한 치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자기 분석이 결국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 역전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 경험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습생들로 하여금 자기분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실습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중 하나가 기관 담당자의 부적절한 개입과 부족한 지지 경험이었는데, 이 경험은 결국 기관 담당자들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 밝히지 못했던 부분으로서, 내담자를 위한 적절한 음악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세팅을 위한 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기관 담당자들에게 음악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절실함을 인식하게 한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진술했는데, 특히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이 이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했다. 이는 숙련되지 않아 불안할 수 있는 실습 체험 안에서 실제적 도움과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슈퍼바이저이고, 슈퍼바이저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습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습득하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6-11]과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이를 통해 슈퍼바이저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이 준비된 음악치료사로 성장해가기 위한 초기 경험으로서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이들이 임상실습 전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현상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내담자의 치료 목적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습 과정을 통해 전공생 스스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경험은 음악치료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할 수 있는 실습 과정의 지침 및 방향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실습 안에서 내담자와 건강한 치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자기 분석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는 결국 자기분석 기회를 실습생에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내담자와 함께 하는 음악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관 협조의 필요성이 실습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음악치료에 대한 정보가 기관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이 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는 슈퍼바이저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석사 및 학부 과정을 포함한 모든 학교들에서 실습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을 골고루 선정하지 않았기에, 음악치료 전공생의 전반적 실습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학교의 실습생을 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한 참여자들의 경험만을 연구 자료로 사용했지만, 후속 연구에서 로그북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한다면 전공 학생들의 실습 경험 현상의 본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K. E. Bruscia, *Defining Music Therapy* (2nd ed.), p.30,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1998, pp.56-58. ISBN: 1-891278-07-X
- [2] B. L. Wheeler, "Experiences and concerns of students during music therapy practica", *Journal of Music Therapy*, Vol.39, No.4, pp.274-304, 2002. DOI: <https://doi.org/10.1093/jmt/39.4.274>
- [3] F. J. McClain, "Student evaluations of practicum training in music therap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54, No.7, 1993. 2502A. (University Microfilms No. DA9332828)
- [4] M. Forinash, D. Grocke, The phenomenological inquiry. In B. L. Wheeler (2nd), *Music therapy research*, NH: Barcelona Publishers, 2005, pp. 322-334. ISBN: 1891278266
- [5] H. A. Lim, S. Quant, "Perceptual differences in music therapy clinical supervision: Perspectives of students and supervisor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Vol.28, No.2, pp.131-150, 2019.

DOI: <https://doi.org/10.1080/08098131.2018.1528559>

- [6] D. M. Kim, "The Relationship Among Shame, Self-Efficacy, Supervisory Relationship, Attachment Style, and Evaluation Anxiety in Music Therapy Group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14, No.1, pp.1-27, 2012.
DOI: <https://doi.org/10.21330/kjmt.2012.14.1.1>
- [7] H. M. Park, "Survey of Music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on the Clinical Practicum Training and Supervision",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8, No.1, pp.61-81, 2011.
DOI: <https://doi.org/10.21187/JMHB.2011.8.1.061>
- [8] E. E. Kwak, B. Jang, G. E. Yoo, "Music Therapy Supervisory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Supervision Format",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9, No.1, pp.21-36, 2012.
DOI: <https://doi.org/10.21187/JMHB.2012.9.1.021>
- [9] J. Yun, "Korean Music Therapy Students' Growth in Supervision: A Modified Grounded Theory",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10, No.2, pp.35-54, 2013.
DOI: <https://doi.org/10.21187/JMHB.2013.10.2.035>
- [10] K. S. Lee, "A Structural Analysis Among Feedback Acceptance, Supervisory Style, Supervisees' Developmental Level, and Working Alliance Perceived by Supervisees' of Music Therap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17, No.1, pp.23-44, 2015.
DOI: <https://doi.org/10.21330/kjmt.2015.17.1.23>
- [11] K. S. Lee,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y Supervisees' Acceptance and Satisfaction on Supervisory Style : The Mediation Effect of Supervision Working Alliance",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20, No.1, pp. 179-196, 2018.
DOI: <https://doi.org/10.21330/kjmt.2018.20.1.179>
- [12] A. Giorgi, A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Artistic Process. In J. G. Gilbert (E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Health, Nursing and Arts Professions, 1984, pp.10-37.
- [13]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p. 393, Sage publications, 2017, pp.202-210.
- [14] E. G. Guba, Y. S. Lincoln,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1994, pp.105-117.

음 승 희(Seung-Hee Eum)

[정회원]



- 1999년 8월 : 숙명여대 음악치료 대학원 (음악치료학 석사)
- 2012년 12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음악치료학 석사)
- 2018년 8월 : 숙명여대 음악학과 음악치료전공 (박사 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강사
- 2020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이난복음악치료연구소 부소장

〈관심분야〉

음악치료, 심상음악치료, 분석적음악치료